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수 56.7%, 사고건수 33.3% 감소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잦은 곳 전국 300개소 맞춤형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회전교차로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등 복합 시설 개선으로 위험 요인 해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



그림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 <자료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300개소 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7%(30명→13명), 사고건수는 33.3%(2,222건→1,48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선 구간: 전국 국도, 시·군도, 지방도 / 분석 기간: 개선 전('20~'22년 평균), 개선 후('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고, 사고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1988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차로 전방 신호기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신호·과속 단속 장비 설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 시행으로 사고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사진1,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례,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 도색 등(광주광역시 북구 한림장오거리)
(좌)개선 전, (후)개선 후 사고건수 100% 감소(6건 → 0건)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 한림장오거리는 ▲무신호교차로 구조 ▲불법주정차 ▲통행우선권 부재로 인해 차대차 측면충돌사고가 연평균 6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해당 구간에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로 확보 ▲통행우선권 부여 ▲도로 도색 등 시설개선을 추진했다. 개선 후 1년간 사고는 0건으로 감소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홍유표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거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교통안전본부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책임자	센터장	홍유표 (033-749-5250)
		담당자	차 장	황정현 (033-749-5211)

‘교통사고 잦은 곳’ 기준

□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아래 표와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1년간 일정 기준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구 분			선정기준
지점	지역	특별·광역시	5건 이상
		일반시 및 기타	3건 이상
	도로형태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에서 후방 30m내외
		단일로 등	시가지 기타, 고속도로
구간	지역	특별·광역시	17건 이상(연장 1km 이상일 경우)
		일반시 및 기타	8건 이상(연장 1km 이상일 경우)
	도로형태	시가지	최소 연장 0.5km 이상
		기타, 고속도로	최소 연장 1km 이상

*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역시 중 '군'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시 및 기타지역 기준(3건)을 적용함

표1.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기준 <자료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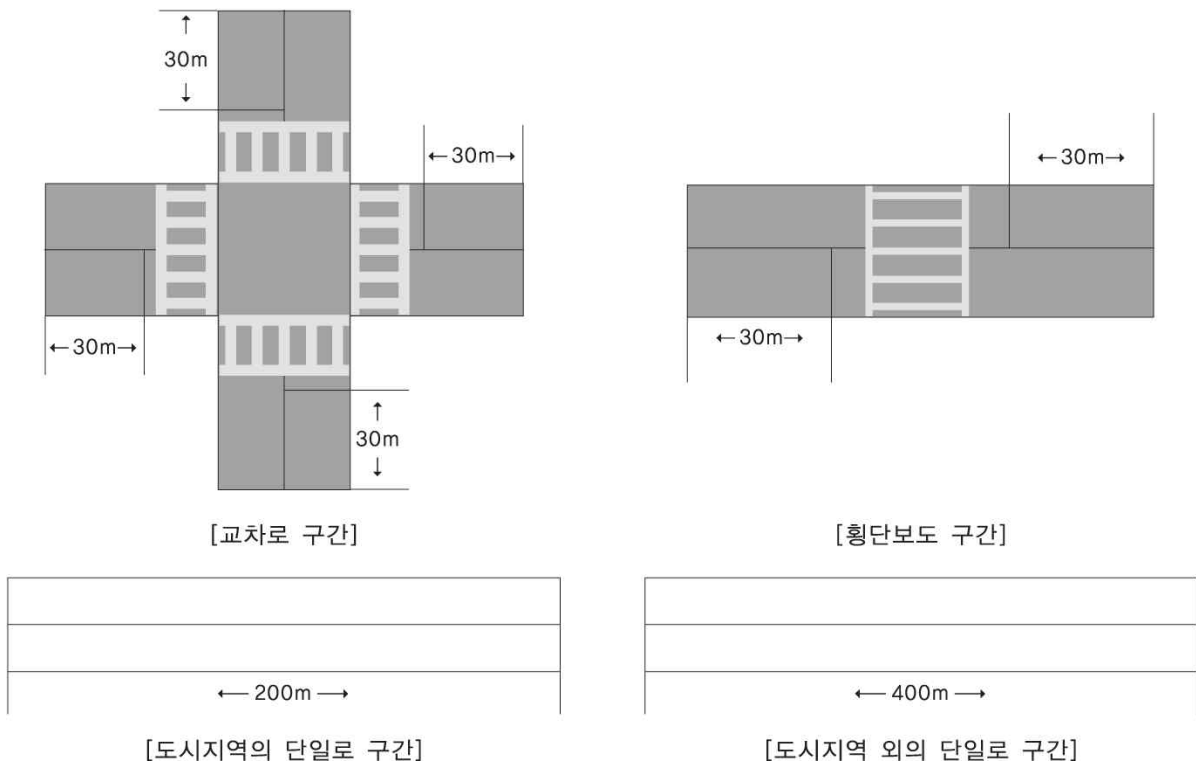


그림2. 교통사고 잦은 곳의 공간적 범위 기준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